강릉원주대신문

깨어있는 지성인의 올곧은 소리

발행인 반선섭 **주간교수** 김태완 **편집인** 김태현
주 소 (우)25457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기자실 강릉캠퍼스 033)640-2615 / 원주캠퍼스 033)760-8916 **행정실** TEL 033)640-2614 / FAX 033)640-2031

창 간 | 강릉대신문 1979년 6월 30일 / 원주대학신문 1991년 9월 17일
재창간 | 강릉원주대신문 2009년 4월 13일

TH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3년 06월 07일 수요일 99호

푸른 대동제, 청춘을 노래하다



▲ 2023년 5월 신록으로 물든 캠퍼스에서 “Bravo, My Life”를 외치고 있는 학우들 <이예진>

“Bravo, My Life”, 청춘에 대한 위로와 응원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릉원주대학교 축제인 ‘대동제’가 진행되었다. ‘Bravo, My Life!’라는 슬로건을 건 이번 축제는 ‘살아온 지난날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찬란한 미래를 기원하는 청춘에 대한 위로와 응원의 축제’를 목표로 기획되었다.작년 9월에 진행되었던 ‘대동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지만 올해 진행된 축제의 열기는 한층 더 했다. 우선 작년과 달리 다양한 학과들의 부스 참여가 이루어진 반면, 외부 제휴 상인들의 부스가 줄어들어 학생들이 만들어 나가는 축제라는 느낌을 주었다. ‘교내 맞선’ 부스를 운영한 국어국문학과 학회장 20학번 신민기 학우는 “작년과 비슷한 위치와 형태의 부스가 운영되어 부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하고 편안하였습니다. 총학생회 측이 업무 처리에 있어서 친절하게 소통하였기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 부스 운영기간 동안 부채와 커피 제공 등의 혜택 제공이 더운 날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이러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학과 부스 진행에 있어서 수월한 진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어 학과 부스에 참여한 학우들의 반응도 좋았는데, 해양바이오식품학과 23학번 김정엽, 이호인 학우는 “타로부스와 ‘셔터’부스가 재밌었습니다. 대학에 와서 처음 즐겨보는 축제라 설레고 너무 즐겁습니다. 저녁에 진행될 초청가수 공연이 제일 기대되고 얼른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학과 부스를 포함, 여러 부스 중 37대 총학생회가 준비했던 포토부스와 장미꽃을 제공한 ‘스물스물 모여라’ 부스에 대한 학우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축제 첫날 학교에 장미꽃을 들고 있던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포토 부스 앞은 줄 선 많은 학우들로 붐볐다. 포토부스는 포토이즘 업체를 통해 사진 출력, 용지 리필 방법, 사진 커팅 등의 자문과 촬영소품을 지원받아 스튜디오를 꾸몄다. 총학생회 측은 “‘청연’이 준비한 대동제를 추억해 달라는 의미와 학우분들의 소중한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고 전했다. 부스를 이용한 학생 중 독어독문학과 19학번 이태수 학우는 “대기인원이 많고 더운 날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지만 고퀄리티 사진을 인원 당 1장씩 받고 이메일로 원본파일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2명이라는 다수의 인원이 사진을 찍어 장소가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학우들과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부스를 준비해준 것에 만족합니다.”라고 말했다.

북적이던 주점 ZONE

부스 체험시간이 종료된 뒤 주점 ZONE은 작년과 동일하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병과 캔 반입이 불가하고 10대 가량의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음식을 구매해 먹을 수 있게 운영되었다. 그러나 작년과 달리 주점 ZONE 입장에 대한 통제와 입장시간이 생기면서 5시부터 농구장까지 학생들이 길게 늘어섰다. 줄을 섰던 국어국문학과 21학번 김보정 학우는 “오후 4시 반부터 서 있었는데 우리를 기준으로 그 뒤부터 줄 서는 게 보였고 6시에 입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땡볕에서 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통제를 잘 따라주는 모습이었고, 입장 때도 질서있게 입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라며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질서에 대해 말했다. 길었던 입장 줄 만큼 주점 ZONE은 삼삼오오 각자의 추억을 만들기 위한 학생들로 빠르게 채워졌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보였는데 신규상·서주영 동문은 “졸업하고 학교에 다시 찾아와 축제를 즐기는 기분이 좋습니다. 추억들도 떠오르고 혈기왕성한 학생들의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고 저희도 재밌게 놀다가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원활하게 이루어진 주점 운영은 초청가수 공연이 시작될 때 작은 문제가 생겼다. 공연을 보기 위해 무대로 향하는 학우들이 자리에 최소한의 짐만 놓고 공연을 보러 가면서 남겨진 자리를 이용하려던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경영학과 21학번 엄주희 학우는 “주점을 이용하려고 기다리던 중 자리에 가방만 두고 사라진 사람들이 4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 측에 자리를 이용해도 되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총학생회 측에서 조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싸움이 날 수도 있기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가서 놀아야했다.”고 말했다. 작년에도 같은 문제가 있던 만큼 ‘자리맡기’에 대한 학우들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데, 잘 통제된 입장과 마찬가지로 규칙에 따른 통제 또한 필요해 보인다.



▲ 입장시간과 주류통제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북적이던 주점 ZONE <이금희>

축제의 꽃 초청가수 공연

축제의 꽃으로 볼 수 있는 초청 가수 공연은 학우들의 뜨거운 반응과 열기로 가득찼다. 5월 15일 허각, 16일 기리보이, 한요한 17일 효린, 임재현이 학교를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했다. 작년처럼 재학생 ZONE을 따로 준비하여 공연 관람에 있어 재학생들의 편의가 보장되었다. 3일의 공연을 다 관람한 영어영문학과 23학번 김도이 학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더웠고 힘들었지만 연예인을 가까이에서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은 아니었지만 학교 축제의 분위기를 뜨겁게 해주어서 즐거웠습니다.”라고 첫 축제의 소감을 말했다.



▲ 초청가수의 공연을 뜨겁게 즐기고 있는 학우들 <박현재>

학기 중 가장 큰 행사인 대동제를 마친 곽태웅 학생회장은 대동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체적으론 만족합니다. 다만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느끼는 점이지만 ‘조금만 더 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 또한 동반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 2일과 3일차 오전과 오후엔 학우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야간엔 많이들 나와서 준비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가을축제엔 더욱더 알찬 행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학기 중 임원진이 학생회를 많이 그만두게 되어 진행에 차질은 없었냐는 질문에 “부회장, 국장 공석보단 전체적으로 진행 요원이 많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여 대처하는 모습에 우리 ‘청연’ 집행부원들이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정말 3일동안 잠도 잘 못자고 더워서 서로가 많이 예민했을텐데 불평불만 없이 이번 행사를 잘 마무리했다는 것에 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남은 임기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라고 37대 학생회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학생들의 참여를 위주로 행사를 구성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더 발전한 해람인들로 우리의 아름다운 축제를 더욱 빛내길 바란다.

김건 기자

넘치는 쓰레기에 무너지는 보금자리



▲ 주말에 분리수거가 되지않아 더러워진 솔향관 1층 로비에있는 분리수거장 <신지우>

우리들의 보금자리, 생활관

학생 생활관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 시설이다. 현재 강릉원주대 강릉캠퍼스에는 명진관, 율곡관, 사임당관, 솔향관, 해송관, 국제교류관 등 총 6개의 생활관이 있다. 생활관에는 2,100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제공한다. 1학년이 신청할 경우에는 100% 입실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생활관 입실은 학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는 가닿고픈 꿈의 장소이기도 하다.

쌓이는 쓰레기, 더러워지는 생활관

생활관 분리수거장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금요일만 되면,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여 월요일 오전까지 방치된다. 이는 매주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2018년도부터 생활관에서 지내던 학생은 “음식물 버리는 곳이 따로있어,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일반 쓰레기에 같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곤 한다. 그 외에도 캔을 찌그러트리지 않아, 넘쳐 떨어진다.”라고 말하며 생활관의 분리수거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해송관 및 율곡관의 공용 냉장고에서 음식물이 썩는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해송관의 1층 휴게공간 테이블이 비위생적으로 방치된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해송관에 거주 중인 한 학생은 “공용 냉장고는 이미 안 쓴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구잡이로 더러워진 상태라 사용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거든요. 콜라 캔을 딴 채로 그냥 넣어두는 건 양반이죠”라며 공용 냉장고의 위생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수용 인원 대비 부족한 분리수거장과 관리 인력의 부재

이러한 문제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생활관 수용 인원 대비 분리수거장의 분리수거 통이 지나치게 적다. 명진관과 국제교류관을 제외한 생활관은 각각 300명에서 400명을 수용한다. 하지만 수용 인원과 달리 분리수거장은 협소하기만 하다. 솔향관의 경우 401명을 수용하지만, 분리수거 통은 6~7개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주말 동안 청소 인력의 부재이다. 생활관 분리수거장을 담당하는 미화직원은 1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아, 금요일에 쌓인 쓰레기가 월요일 오전까지 방치된다. 게다가 주말에는 학우들이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빈도 수가 많아, 쓰레기는 산더미가 된다. 그리고 공용 냉장고 또한 관리의 문제가 있다. 해송관 1층, 율곡관 2층 냉장고에는 주의 사항과 벌점만 적혀져 있다. 생활관 관계자에 따르면, “공용 냉장고에 대해서는 학생 도우미(층장 및 동장)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과는 달리, 학생들은 “층장과 동장이 관리하고 있지도 않고, 벌점도 부여되지 않는 것 같다.”며 의문을 표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생활관 생활을 해 온 학생은 “층장이나 동장이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다. 또한 위생 문제 이외에도 흡연이나 생활 소음 등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인식과 배려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이를 위한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청결한 기숙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분리수거 통이 부족하여 밖으로 쌓이는 해송관쓰레기들 <신지우>

행정실은 학교 관활이 아니라고 떠넘겨

이러한 생활관 위생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있는지 생활관 행정실에 문의해 보았다. 하지만 "명진관과 국제교류관을 제외한 율곡관, 사임당관, 솔향관, 해송관은 학교 관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민간 운영사(BTL)에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떠넘기기식인 학교측은 믿고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에브리타임에서 제기되고 솔향관 분리수거장의 쓰레기 <에브리타임>

위생을 위한 한 발자국

생활관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관생들의 자발적인 위생 관념 개선이 필수적이다. 안내 및 관리를 통해 쓰레기가 몰아서 버려지는 걸 방지하고 위험한 날붙이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처리 후 버리도록 해야 한다. 공용 냉장고를 청결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학기 마무리를 앞두고 생활관 퇴실 기간에 청결한 생활관을 기대해 본다.

신지우 기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 관악 정기연주회에서 전공 교수와 학생들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앙상블 연주 <김혜미>

우리 대학 음악학과에서는 지난 5월 9일 피아노 정기연주회와 5월 17일 관악 정기연주회를 예술 1호관(C10) 콘서트홀에서 개최하였다. 대동제와 함께 열린 5월의 음악회는 무더운 날씨에 지친 학생들에게 청량한 연주 소리로 찾아왔다.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 피아노 연주회와 공연장에 작은 우주를 펼쳐낸 관악 연주회가 강릉원주대의 초여름을 빛내며 마무리되었다.

사제 간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연주회

이번 피아노 연주회에서는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와 학생들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사제 간의 앙상블 연주로 구성되었다. 두 대의 피아노를 중심으로 4~8명의 교수와 학생이 팀을 이뤄 연주를 진행한 것이 이번 연주회의 특징이었다. 연주회는 라흐마니노프의 경쾌한 왈츠곡으로 시작해서 요한 스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게릭올슨의 스콧 조플린 랙 랩소디, 프란츠 리스트 헥사메론 등 재즈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새롭게 편곡해 연주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아리랑 공연에서는 징과 꽹과리를 활용해 피아노와 타악기의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흥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피아노 연주회를 감상한 중어중문학과 21학번 류혜원 학생은 “작년 연주회에서는 개개인의 개성적이고 특색있는 모습들이 흥미로웠는데, 이번 연주회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호흡을 맞추며 즐겁게 연주하는 모습이 새로웠으며 특히 아리랑 연주가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화려한 앙상블로 펼쳐진 관악 연주회

5월 17일 열린 관악 연주회에서는 무대를 꽉 채우는 다양한 악기들과 웅장한 분위기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번 관악 연주회 지휘자로 나선 음악학과 나채원 교수를 필두로 학생들의 트롬본, 트럼펫 개인 연주 협연과 첼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팀파니, 마림바, 피아노 등의 합주가 이어졌다. ‘우주’를 주제로 펼쳐진 관악 연주회에서는 우주와 관련된 곡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었다. 먼저 캔디드 서곡으로 막을 올린 연주회는 김희원 학생의 트롬본 연주와 함께한 림스키코르사코프 곡, 김태연 학생의 트럼펫 연주와 함께한 요제프 하이든 곡의 연주와 구스타브 홀스트의 행성 모음곡 중 제4곡 목성과 제1곡 화성, 존 윌리엄스의 스타워즈 사가 메들리, 미션 임파서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관악 연주회에서는 다양한 악기들로 화려하고 큰 규모를 자랑한 만큼 우리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외부인 관람객도 상당수 보였는데, 그중 한 외부 관람객은 “공연을 보러 오기 전 예상한 것보다 더욱 거대한 규모의 공연에 내심 놀랐고 감탄했다. 공연을 보면서 직장인 악기 동호회가 있다면 가입해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음악학과 유현지 교수는 “이번 피아노 정기연주회 '피아노 앙상블,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준비 하면서 학생들이 교수와 유대감을 쌓는 값진 시간이었을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연주자들은 연주곡을 연습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번 피아노 정기연주회는 연주 프로그램 구성부터 팜플렛 디자인까지 연주회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독주로 많이 연주하는 피아노 학생들에겐 합주를 통한 음악의 화합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채로운 구성과 재미있는 기획으로 피아노 정기연주회가 매년 진행될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음악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많은 노력 끝에 연주회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또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친 일상 속 예술 공연을 접하는 색다른 경험을 통해 잠시 쉬어가는 치유의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의 마음에 예술적 감수성이 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김혜미 기자

거센 바람이 가져온 불씨, 강릉 산불



▲ 초속20~30m/s의 강한 바람으로 발생된 강릉 산불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조물 <엄찬용>

지난 4월 11일, 강원도 강릉시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초속 20~30m/s의 매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건조 경보가 내려짐과 동시에 산불의 위험도 예고했다. 우려대로 강릉 경포대 인근에선 화재가 일어났고 봄꽃이 피어나는 화창한 계절에 강릉은 불꽃을 직면했다. 거센 바람으로 소나무가 꺾여 넘어지면서 인근의 전선을 건드린 것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측되고있다. 그로 인하여 불꽃이 일어났으며 건조한 날씨였기에 불은 삽시간에 번져 나갔다. 불꽃은 점차 산지를 타고 번졌으며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 갔다. 화재 발생 한 달 만인 5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강릉 산불과 관련한 피해 규모와 피해액 그리고 피해복구액을 발표하였다. 강릉 산불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사망 1명·중상 1명 등의 인명피해 주택 204동, 숙박 및 음식업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ha 등의 생활기반건축물 피해로 약 274억의 피해를 봤다. 피해 복구에는 약 341억이 지원되면서, 강릉 산불로 인한 화재의 상처 치유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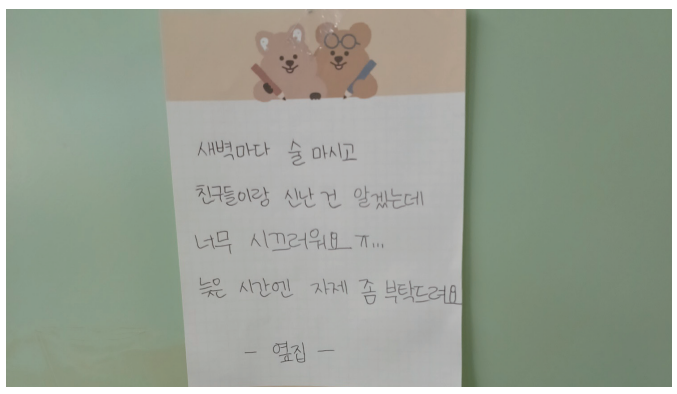
▲우리 대학 해람프로보노봉사단이 산불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 꾸러미를 만드는 모습 <대외협력본부>

강릉지역에 큰 피해를 준 거대한 규모의 산불을 진압하는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다. 거센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산불을 진압하기 위한 헬기조차 띄우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 발생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대부분 진압되었지만, 곳곳에 소규모로 재발하는 불길을 잡느라 애를 먹었다. 산불 피해로 인해 인근 학교들은 휴업 및 단축수업을 단행했다. 산불의 원인이 된 바람의 영향은 경포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 강릉원주대학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강한 바람에 의해서 사회과학대학 인근에서는 큰 나무가 쓰러져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대운동장 조명 등이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다. 에브리타임에는 휴강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과거 2019년 강원도 속초시에서 산불이 번져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당시 우리 대학에서는 산불 피해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모금을 통해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자하였다. 산불 피해 재학생에게 장학금 전달뿐만 아니라 대동제 총학생회 부스에서 산불 기부 모금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외협력본부의 해람프로보노봉사단이 지난달 4월 27일에 산불 피해를 보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 꾸러미 세트를 제작하여 전달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했으며 건강 꾸러미 세트에는 수건과 위생용품, 파스와 위로 카드를 제작하였다. 우리대학 치과병원에서는 산불 피해 이재민의 임시대피소 찾아가 긴급 치과 진료 봉사를 시행했다. 또한 대한치과병원협회와 함께 구호 물품(구강위생용품 1,000세트)을 전달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 이번 강릉 산불을 계기로 화재의 위험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며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자연재해를 더 조심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엄찬용 기자

늦은 밤 고성방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학생들



▲ 늦은밤 소음공해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이금희>

늦은 밤,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강릉원주대학교 학생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는 2023년도 5월 한 달에만 소음 관련 호소 글이 약 50개나 작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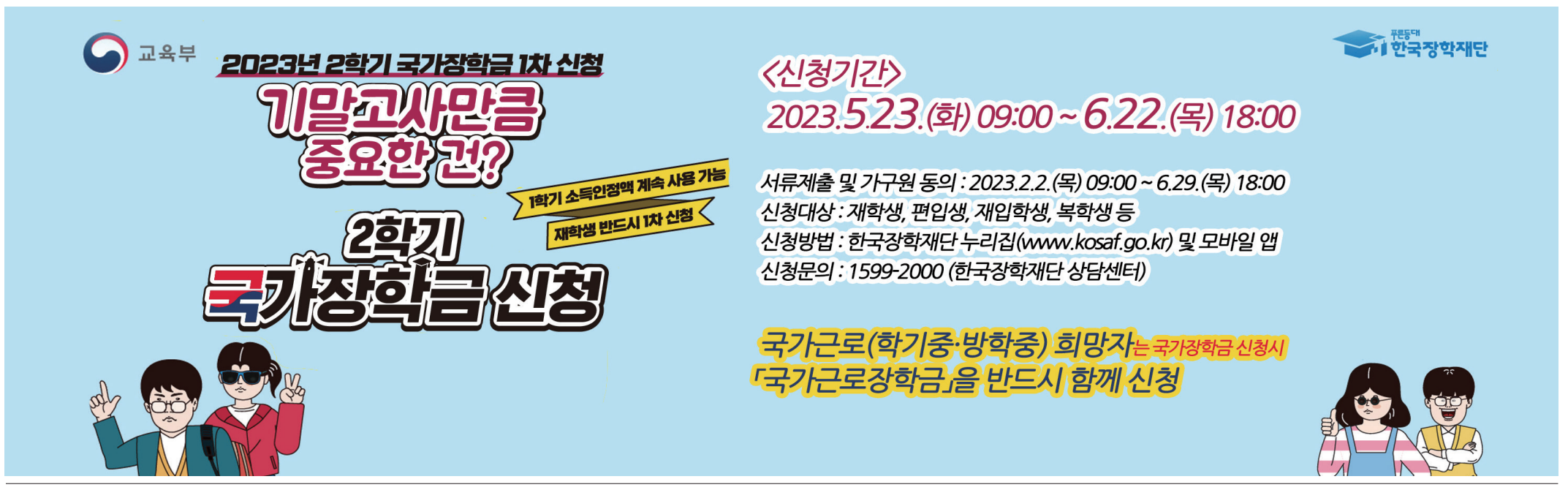
이와 같은 소음공해는 우리의 일상을 망가트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생활관에서 계속되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거주하고 있는 생활관의 층장 혹은 동장에게 소음 관련 신고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생활관에서 소음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관 상·벌점 기준표을 통해 제재하고 있다. 생활관 상·벌점 기준표에서 벌점 항목 15번을 보면 고성방가 및 소음(게임, 보이스톡, 음악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7점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이면 차기 학년 입사 제한, 25점일 때 퇴사 처리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생활관에서도 소음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는 생활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학교 주변 자취방에서도 소음에 대한 피해는 전해지고 있다. 회계학과 하단비 학생은 "늦은 밤, 큰 음악 소리나 새벽까지도 계속되는 음주소란 등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의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했을 때 소음의 형태에 따라 인근소란죄, 음주소란죄 두 가지로 소음의 제공자가 받게 될 처벌이 나뉜다. 첫 번째로 '인근소란죄'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내려지게 된다. 두 번째로 '음주소란죄'는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적용된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 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동일하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내려지게 된다.

이처럼 소음에 대한 문제는 피해 신고를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서로가 조심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속히 소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줄어들길 바라며 우선은 나 자신부터 소음 제공의 원인이 되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는 건 어떨까?

이금희 기자



사 설

어쩔 수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요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라는 말들과 비슷한 말들이 만연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상황에 치이거나, 시간에 치이거나, 관계에 치여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질타에서 벗어나려 한다. 혹은 자신의 기준으로 목표를 위해 더 나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최선이다'라는 식으로 놓아버린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해가며 쉽게 볼 수 있다. 예컨데 조별과제에 치이는 학우들은 역할 분담하는 순간부터 발표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료수집을 할 때 '알바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본가에 가야 해요.' 등 갖은 이유를 대고 자료를 나무위키 등에서 긁어오는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자료조사를 대충해온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 '제가 상황이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라는 반문을 받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한번은 자신이 낙제라는 이유로 아예 하던 프로젝트 혹은 과제를 던져버리는 경우도 보았을 것이다. 조별 과제뿐만 아니라 알바를 갑자기 그만둔다던가, 가볍게는 만나기로 한 약속을 쉽게 깨버리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는 쉬운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기적으로 책임 회피와 자기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은 요즘같이 개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최저시급을 받으니 최저로만 일하겠다는 알바생의 등장, 자신의 기준과 다른 사람은 무조건 배척하며 차별하는 세태(남녀 갈라치기, mbti로 사람 분류하여 배척하기 등) 등과 같은 것들이 '어쩔수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와 합체를 이루면서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 상황에 같이 있다면 눈 뜨고 봐주기 힘들 정도이다.

힘든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말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정말로 자신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한테 열 번이고 해줄 수 있는 말들이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에게 열 번 해줄 수 있으나 남한테 해야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남들과 같이 일하는 과정이라면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노력을 쏟아부었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아닌 남들에게 '어쩔 수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라는 말이 나온다면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다른 집단 내에서 편협한 개인주의에 치중한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만하면 됐지'라는 식으로 자신이 맡은 책임을 놓는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로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었더라도 말이다.

실제로 비겁한 자기정당화를 자행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1923년 신채호 선생은 '조선혁명선언'에서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애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로 초두를 던진다. 강도의 편을 들었던 친일파들은 1945년 광복 이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방어적 태세를 먼저 취했는데, 이는 그들의 비겁함을 인정하는 격일 뿐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된 것이 아니었다. 이후 행동을 정당화할 상황설정으로 '그 당시에 내 행동은 최선이었다.'로 바꾸고 방어적 태세에서 공세적으로 태세를 전환한다. 일제 군국주의와 친일파가 국권을 빼앗은 강도짓을 했다면, 해방 이후 군사 독재 시기에는 정부와 당시 검찰과 경찰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강도짓을 했다. 그때 당시 언론과 검사 등 군사정부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친일파와 같은 처세즉, '최선을 다했다.'라는 식의 자세를 취했다. 친일 미화와 군사 독재 미화 논리가 같은 계보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과정들의 반복으로 친일·군사 정변에 대한 순응과 친일파와 군사 독재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세태가 한 세대 안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양심과 지적능력 그리고 책임감으로 이루어진 인격체로서 옛 것을 오늘의 거울로 삼는 '이고위감(以古爲鑑)'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

경호일언

뇌물 아닌 뇌물



장예준(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뇌물을 건네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일까? 이 무슨 하나 마나 한 질문을 하는가 싶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뇌물을 건넴으로써 정당하지 않은 박대를 피할 수 있다거나 심지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에도 위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

19세기 조선 사회에서 제법 인기가 있었던 소설 유형 중에 우화소설이라는 유형이 있다. 동물을 의인화하여 사건을 구성해 나감으로써 당시 사회제도의 문제, 백성들의 고달픈 삶의 모습 등을 그려낸 소설 유형이다. 그중 송사(오늘날의 소송) 문제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을 묶어서 송사형 우화소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당대에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던 다양한 뇌물 수수 양상이 그려진다.

먼저 송사에 직접 관여하는 판관 혹은 관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넨다. 이는 특히 피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건네는 것으로, 전형적인 뇌물이다. 다음 송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인물 혹은 마을의 대표에게 뇌물을 건넨다.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결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역시 전형적인 뇌물이다. 이 두 가지 양상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가? 소송 향방의 결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은, 피고로서 재판장에 소환되기까지 편의를 받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감옥 생활을 할 때 편의를 받는 차원에서 건네는 뇌물이다. 이는 송사형 우화소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양상이다. 집안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뺨을 내갈기고 고함을 지르며 결박해 끌고 가려는 관리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건넨다. 그러고는 재판장까지 편안하게 들어간다. 재판에 앞서 옥에 갇힐 적에도 관리들에게 미리 준비해 둔 물건들을 건네어 감옥 생활도 어렵지 않게 하게 된다.

소설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약간 풍자적인 시선으로 그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조선 시대 피고 소환과 감옥 생활과 관련된 청탁의 실상과 의미를 고려하면, 이 문제에 대해 곧장 단정을 지어 답하기가 곤혹스러워진다.

먼저 조선 시대 송사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직접 데려와야 했다. 피고가 이를 무시할 때에는 결국 관아의 관리가 잡아오게 되는데, 이때 관리들의 횡포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 횡포는 토색질(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달라고 하는 짓)의 일환으로 자행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피고는 미리 준비해 둔 물건을 관리에게 건넴으로써 이러한 횡포를 면할 수가 있었다.

게다가 조선 시대 사람들에게 감옥은 이승의 지옥으로 인식될 만큼 극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17세기 초 영남의 명사로 이름 있었던 유진(柳袗)은 1612년 2월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들어갈 때 죽음을 예감하고 집안사람들에게 영결을 고할 정도였다. 죄의 유무를 막론하고 벌을 받기 전에 감옥 관리들의 토색질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옥의 지배자인 형리와 옥졸들의 토색질은 때와 상황, 신분을 가리지 않았으며, 괴롭히는 방법도 다양했다. 유진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온 물품을 모두 빼앗겼으며, 고향에서 짐말이 와서 옥졸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건넨 후에야 비로소 옥졸의 등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참 죄수들의 토색질도 대단했다. 신참 죄수가 감방에 처음 들어갈 때, 감방을 관장하는 우두머리 죄수인 행수와 그를 보좌하는 색장에게 음식과 옷감 등을 반드시 바쳐야만 이들의 온갖 학대가 멈추었을 뿐 아니라, 신참 죄수가 통과해야 하는 갖가지 관문들도 통과할 수 있었다. 유진은 집안사람의 옥바라지 덕에 옥졸과 죄수들의 구박과 학대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상을 고려할 때, 감옥 생활에 관여되는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받는 수탈은 범죄 유무에 상관없이 감옥 생활을 하는 한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었으며, 이 세 번째 예로 든 뇌물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뇌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마냥 잘못했다고 돌을 던질 수 있을까? 한국고전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이러한 사례를 접할 때마다 당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품에 드러난 모습을 섣부르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없는지 늘 반성하게 된다.

한 컷 속으로



슈퍼 커리어 주간
(Super Career Week)

2023년 5월 8일부터 13일까지 Job 카페 앞에서 슈퍼 커리어 주간 행사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취업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주간입니다. 부스 행사로는 돌림판을 돌리거나 문제를 맞추는 등 여러 이벤트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정의 기념품이 있었습니다. 또한 커피 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슈퍼 커리어 주간을 통해 막연한 미래에 답답했던 학우들의 마음이 풀어지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우 기자

대학신문고

대학신문고는 우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화젯거리, 논쟁거리 등에 대하여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을 갖기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해당 코너에서는 "에브리타임" 등에 게재된 학우의 글을 가급적 그대로 서술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익명은 글쓴이의 허락 없이 게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5월 18일, 에브리타임, 흡연자들아.

제발 흡연구역 잘 지키면 안 돼? 기숙사 나오자마자 담배냄새가 나서 뭔가 싶었는데 기숙사 뒤가 흡연구역인데 옆에서 피더라? 이게 뭐냐?

- 배려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런 애들은 믿고 거르셈.
- 공과대학 옆에도 금연 표지 앞에서 담배 많이 피움.
- 담배 없으면 수명 깎이는 사람들임. 제발 피는거 뭐라고 안 하니까 멀리서 펴주라 애들아.

☞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도 생각하는 학교생활을 합시다.

● 5월 16일, 에브리타임, 원주캠 총학

축제인데 라인업이나 타임테이블을 과단톡방에 공지를 안하고 인스타에만 계속 올리시나요? 인스타 안하는 사람도 많은데 참여를 위한다면 카톡에도 해주는게 맞지 않을까요?(빅나티 변경 제외) 워터 그라운드도 사진 1장 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랐고 해람인의 킬링파트도 대동제를 빛나게 해줄 학생회비 납부자? 라고만 설명되서 춤, 노래를 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에타만 봐도 축제 하루전에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문 것으로 보아 자세한 설명은 힘 써주세요.

- 인정, 인정, 차라리 에타에라도 올리던가.
- 맞아. 난 인스타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에브리타임 보면서 정보 얻거나 친구 통해서 아는데 인스타 안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과단톡방이나 에브리타임에 올려줬으면 좋겠다.
- 자기들이 관리하는 인스타에도 전날 올리는데 과학생회에 전달이 되겠어?

☞ 학생회분들이 학교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축제에 학생들이 자세하게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총학생회는 더 나은 축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부활하는 천원의 아침밥



▲ 2016년 처음으로 시행된 천원 국밥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대면 수업이 일상화 된 캠퍼스는 다시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활기찬 캠퍼스 풍경이 되살아난 것이다. 학교 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다수의 학교에서 학생식당을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소통창구인 에브리타임에서는 일명 '천원 국밥'을 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인지 질문하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는 한다. '천원 국밥'은 우리 대학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다. 해당 기간에 강릉원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학생식당에서 닭곰탕, 사골국밥, 콩나물국밥 등의 일품요리를 하나씩 선정하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아침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천원 국밥 사업은 물론 학생 식당의 운영 자체가 힘들었다. 그 결과 천원 국밥 사업은 중단하게 되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소비문화를 독려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최근에 물가상승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천원에 제공함으로써 젊은층의 아침밥 먹기를 생활화한다는 목적이 더해졌다. 우리 대학은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학교가 보조해 천원에 아침 식사 제공이 가능하게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대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5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3일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 41개교를 선정해, 68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로 인해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많은 대학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청 인원수가 처음 계획했던 수를 크게 넘겼다. 사업 확대에 대한 요청이 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로 추가 모집하여 총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하였다. 대학들의 호응이 좋은 이유는 고물가에 적은 비용으로 식사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작년 28개교 5,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자가 무려 98.7%에 달했다. 이는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긍정적 효과를 보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학생들로 한정하지 않고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 세대 중에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정책은 청년들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고,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만 수혜받는 차별적 정책으로 인식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이유는 '지원금의 성격' 때문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정해지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금의 경우 지원 대상은 '대학생들'로 한정적이다.

우리 대학에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차별적 정책으로 인식되지 않게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 대상을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담당부서인 학생복지과에서는 "당초 우리 대학의 자원(인력, 시설)과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지역 주민에게까지 개방하려고 계획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올해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학생은 모든 지원금의 혜택을 받아 1,000원의 단가로 식사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경우 지원금 대상에 따라 1,000원 이상 또는 지원금 혜택이 없는 메뉴 단가로 아침 식사가 가능하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 확보와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 또 아침 식사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식자재 구입과 인건비를 감안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근처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식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학생복지과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식당을 운영할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메뉴를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 호텔식 세미 뷔페 등 다양한 메뉴를 고려하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학교

맛있는 멀티샵



▲5월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시범 운영한 맛있는 멀티샵의 육회비빔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범 운영된 '맛있는 멀티샵'

우리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기호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다. 2023년 1학기 중간고사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맛있는 멀티샵'을 진행했다. 중간고사 기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학생 식당에서는 한 번도 선보이지 않은 육회비빔밥을 판매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에게 좀 더 특별한 식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의 일품 요리는 하루 평균 60그릇 판매되었는데, 이번 맛있는 멀티샵에서 선보인 육회비빔밥은 150그릇이 판매되었다고 한다. 맛있는 멀티샵은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육회비빔밥을 먹은 관광경영학과 김채윤 학생은 "이번 중간고사에 제가 좋아하는 육회비빔밥을 교외에서 맛볼 수 없던 가격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학생식당에서 비슷한 행사를 많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라며 반겼다.

중간고사 기간에 조합원에게는 할인된 가격으로 4일 동안 5,000원으로 판매되어 저렴했지만 그 이후에는 원래 가격인 7,000원으로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문조사에서는 500명 중 210명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교외 식당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지만 학생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의견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책임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학생식당 리모델링

우리 대학은 2023년 7월 중 학생식당을 리모델링 하기로 발표하였다. 학생 식당 리모델링은 2학기 중에 완료 될 예정이며 완료된 이후에는 일품 코너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백반을 학생식당에서 운영 중이지만 리모델링 후 문화관 식당에서 운영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일품요리 메뉴의 종류는 이번 학생식당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품요리는 생활협동조합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외부 브랜드는 브랜드 업체가 확정되면 생활협동조합원에 가입된 사람들의 한에서 할인될 수 있게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 기간동안 학생회관에서 조금 떨어진 문화관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문화관 식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간동안은 라면, 김밥, 일품 메뉴는 없고 백반만 제공하게 된다. 현재 학생식당은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문화관 식당은 약 280명만 수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리모델링 기간에 문화관 식당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게 되므로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들의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학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식당의 메뉴와 시설을 변화시키고 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더 나은 학교를 위해 변화되어가고 있는 학생식당에 현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김태현 기자



따뜻한 봄날, 인문학 강연에서 만난 '김민섭 작가'



▲ 인문학 강연에서 만난 '김민섭 작가'

2023년 5월 9일 15시 인문대학관 201호 강의실에서 김민섭 작가의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강연이 진행되었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대리사회' 등의 저서를 발간한 김민섭 작가는 포남동에 있는 '당신의 강릉'이라는 독립 서점 대표를 겸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강연의 내용은 tvn 유퀴즈 온 더 블록 출연 계기와 그 이후 선한 영향력의 힘으로 개인화 사회와 시대를 연결하는 방법, 대학 너머의 인문학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라는 3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날 강연에 참여한 학생은 약 140명으로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김민섭 작가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작성하는 학생들과 김민섭 작가가 리사이클링한 유리공예품을 받는 학생들로 붐볐다.

1. 작가님 인생의 변곡점 중 첫번째인 맥도날드에서 일 한 것이 선택권이 없이 하는 수 없이 뛰어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각오가 있었을까요?
- 누구라도 그렇게 뛰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선 특별히 일한다기보단 공부와 논문 강연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을 벌고 건강보험을 받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저에게 첫 물음표를 던진 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강연 중 설명했지만 시간강사로 일하는 것에는 건강보험을 제공받지 못하고 페이도 달에 80만원밖에 벌지 못했다.)

2. 아무래도 밝은 느낌의 희망을 주는 강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막막하고 암울했던 작가님의 심정은 강연 중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의 작가님의 솔직한 심정도 궁금합니다.
- 외로움과 막막함과 상실감이 컸습니다. 대학에서 나왔을 때는 평생 해오던 문학 공부가 학교에서 쓰일 수밖에 없었고, 초·중·고에서 강의는 할 수 없던 저였기에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을 내며 퇴직한 저는 이제 어떤 대학에서도 나를 불러주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생긴 저는 맥도날드로 가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글을 계속 써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아무 생각없이 일하고 있다가 퇴근하고 강연을 다시 하러 가야 하는 도중 복도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어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물류 승강기에 쭈그려앉아 내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그 화물용 엘레베이터에 탄 잠깐의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길게 느껴졌고 이렇게 죽는다면 어쩌지하는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3. 모든 강연을 통틀어서 제가 생각나는 키워드 3가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계기 마련, 자신에 대한 연민 가지기,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 중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로 나온지 얼마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사람은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쓰는 글과 운영하시는 독립서점에서 대중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신가요?
- 아이들이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고 그 쓰레기를 공예품으로 만듭니다. 이 공예품은 책을 구매해서 하는 분들에게 제공하여 리사이클링에 동참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글을 쓰게 하는 서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는 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점을 남의 책을 사는 공간도 되고 자신의 책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쓰고 싶다면 '당신의 강릉'을 찾아와 책을 쓰고 저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작가로서의 삶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작가라는 거창한 직업을 가져야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부모님이 글을 써서 그림책으로 선물한다든지, 연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만든다든지 소소한 이야기의 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책들이 많이 팔리진 않겠지만 각자의 기억들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당신의 강릉'이 기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건 기자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과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김현자 교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김현자 교수'

지난 2023년 4월 21일 식품영양학과 김현자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영양역학 전문가로 위암 및 심혈관질환의 식사요인 연구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위원으로 나트륨 섭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영양학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자 교수를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재직 중인 김현자입니다. 세부 전공은 영양역학으로 식사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과에서 영양연구팀장을 맡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영양학, 영양판정, 영양교육, 보건통계학 등 영양학에 관한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기 위한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매년 국내 다양한 연구 기관과 학회들에서 추천받은 과학자를 대상으로 약 4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에서 추천을 받게 되었고 그 후 공적조서를 제출하고 긴 평가 과정을 거쳐 감사하게도 올해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학자로서 지난 25년 동안 주로 진행한 연구는 위암과 심혈관질환의 식사요인과 위암에서 식사와 유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위한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는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들을 통해 지금까지 국제저명학술지에 약 6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3. 장관상을 받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나요?
- 학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면서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되기는 어려우니 다음을 위해 연습 삼아 작성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음) 학회에서 추천을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는데, 상을 받게 되었네요.

4. 영양역학 전문가로 국민의 질병 예방을 위한 식사 요인 연구와 유전자와의 상호작용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과학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위원으로 나트륨 섭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영양학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트륨 섭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나요?
-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KDRI)은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단체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국가 영양정책 등에 활용되고 기준으로, 5년에 한 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양소 중 나트륨 분과의 개정위원으로 연구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나트륨은 한국인에서 그 섭취량이 매우 높은 영양소임에도 그 동안 적절한 기준이 없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안하는 나트륨 목표섭취량(일일 2000mg)을 기준으로 그 섭취량을 평가해왔습니다. 2020년 DRI 개정 시, 만성질환 위험감소를 위한 나트륨 섭취량(CDRR: Chronic Disease Risk Reduction intake)을 하루 2300mg로 제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5. 현재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질병 예방을 위한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중 바람직한 부분은 생채소 무침, 나물, 찜, 볶음 등 다양한 조리 방법을 사용하여 식품을 고르게 섭취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김치, 장아찌, 고추장, 된장 등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문제가 있고특히, 국 문화를 가지고 있어 국물류 섭취로 인해 나트륨 섭취가 높지요. 나트륨의 높은 섭취는 위암, 심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뼈째 먹는 생선이나 유제품 등 칼슘 섭취가 너무 저조하여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더불어, 서구화된 식사로 인해 지방과 단순당 섭취가 늘어나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트륨과 지방 섭취는 줄이고, 칼슘 섭취는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물류를 드실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의 식사가 바람직하고, 지방과 단순당 섭취를 낮추기 위해서는 패스트푸드와 단음료 등의 섭취를 낮추어야 합니다. 칼슘 섭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유는 성인 기준 1일 1팩(200ml) 이상 드시고, 뼈째 먹는 생선이나 칼슘 강화식품 등을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6. 장관상이나 이와 비슷한 큰 상을 받고 싶은 학생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상을 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필히 빠르게 지칠 것입니다. 저는 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 상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살기 보다는 열심히 하다보면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이니, 당장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현재를 그냥 열심히 살다보면 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늘 독려하고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앞과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연구가 좋아서 또 제 연구가 작게나마 우리나라 공공보건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교수가 된 것입니다.
저 또한 '교수' 라는 직업만을 바라보고 연구를 했다면 지쳤을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며 일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 자체를 좋아하며 하다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강릉원주대 학생들을 늘 응원합니다.

김태현 기자

신문사를 소개합니다.









▲ 신문제작과 편집을 진행하고 있는 강릉원주대학교 신문사 기자들 <김동주>

강릉원주대 신문은 1979년 6월 30일 강릉대학보라는 제호로 창간 및 초판을 발행해 현재의 강릉원주대 신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원주대신문사는 강릉캠퍼스와 원주캠퍼스 학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대학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며, 대학 상호간의 교류를 강화하여 학문적 정보제공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원주대 신문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원들을 소개합니다.

김태현: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신문사 편집국장 김태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신문사를 이끌어나가고 글을 수정해 편집하고 신문을 제작하는 작업을 합니다. 또한 저는 2022년 6월호부터 편집을 시작해 1년 동안 편집을 맡아 신문사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꽃을 심어 예쁘게 만들어가는 것이 어렵듯 힘들었던 시기의 신문사를 다시 재가동시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중간에 다사다난한 일들도 일어났지만 지금의 신문사 부원들이 저를 잘 따라주었고 그것이 큰 힘이 되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부장님이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전하고싶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 신문을 읽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부족하지만 항상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옆에서 지켜봐주시면서 신문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건: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언론원 신문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17학번 김건입니다. 2023년도 1학기까지 신문사에서 일하며 1년 정도 신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문사라는 곳도 언론원이라는 곳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다들 일주일에 한 번 안보면 서운할 것 같은 친구들과 함께할 정도로 정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며 같이 신문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글을 쓰는 우리 부원들에게 감사하고 이 특집기사를 통해 신문사라는 곳이 조금 더 조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찬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3학년도에 입학해서 3개월째 학교 다니는 중인 수습기자 엄찬용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무엇인가를 읽고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각도 남이 떠올려 줬으면 하는 마음에 글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입시를 거치고 나서는 제 글이 정형화되고 꽉 막힌 기분이라 잠시 싫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감정을 녹여내는 글쓰기가 좋고 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신문사도 좋아합니다.

신지우: 저는 수습 기자 신지우입니다. 이제 막 신문사 들어온 따끈따끈한 기자이기도 하죠. 저는 국문학도로서 원래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과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종류의 글에 관심이 생겨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해오던 문학과 결이 달라, 글의 세계가 확장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문사에서 신문 주제 선정, 취재, 사진 촬영, 기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예진: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사 부원 회계학과 이예진입니다. 저는 23년 3월호 신문에 실렸던 '3년 만에 재개한 해람 해외봉사, 캄보디아에서 나눔'과 '꽃이 피기를 기다리며'로 처음 강릉원주대학교 신문사 활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사에 들어와서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인터뷰, 취재 등 새로운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차근차근 적응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김동주: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원주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는 22학번 김동주 라고 합니다. 현재 신문사에 다니고 있는데 예전부터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고 기자 취재에도 관심이 많아 신문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현재 직접 신문 취재, 주제를 정해서 글쓰기 등 미래에도 도움이 될만한 활동들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신문사의 분위기 또한 매우 좋아 재미있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신문들을 쓰고 싶습니다!

김혜미: 안녕하세요. 6월호 기사 작성을 시작으로 신문사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게 된 국어국문학과 21학번 김혜미입니다. 호기심과 작은 관심으로 발을 들이게 된 처음과 달리 본격적인 신문 기획에 들어가며 '내가 쓴' 기사라는 책임감과 함께 기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문사 국장님을 비롯한 부원들의 열의를 보며 저도 앞으로 더 좋은 기사를 잘 쓰고 싶어졌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금희: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사 부원 이금희입니다. 22년 12월호 신문 발행부터 함께하였고, 현재 신문사에서 여러 글을 접하고 작성하다 보니 글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신문사가 아니면 해볼 기회가 없을 인터뷰, 취재, 촬영 등 다양한 경험과 함께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사 국장님, 부장님, 부원들과 서로 피드백, 독려를 해주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 이번 6월호도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앞으로 들어오게 될 부원들과도 재미있는 신문사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혜원: 안녕하세요. 신문사에서 기자로 1년째 활동하고 있는 노혜원입니다. 신문사에서 기자 활동을 하며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학교의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과가 '자치행정학과'인 만큼 학교 행정에 키워드를 맞추어 학교 운영을 관찰하고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우에게 도움이 될만한 기사를 작성하는 강릉원주대학교 기자가 되겠습니다.

김동주 기자

문 학 의 길

의

무역학과 이윤성

세상은 가혹하다
그렇기에 이치와 윤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합리화 하게 된다
사랑의 성격은 간사하기에 자신은 올바를 수 없어도
남에게 강요하게 된다
그럼에도 그런 밝은 가치와 선을 지켜가며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가 바로 의다
마음속에 의협심과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야 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강릉원주대학교 재학생의 말들을 신문으로 대신 전해드립니다! 평소 전하고 싶었던 말이나 못했던 말들을 끄적끄적!

● 안녕. 승민아 나 찬용이야. 나는 이따금씩 너가 나를 버리고 집에 가버릴 때마다 나는 혼자 기숙사에서 외로워 가지말고 놀아줘...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나랑 놀자 앞으로 지낼 2학기에도 잘 부탁해~ - [국어국문학과 23학번 엄찬용]

● 얼레벌레 26살 먹고 졸업하려고 열심히 사는 17학번이 참 안쓰럽기도 한데 주성이가 있어서 위안이 된다. 인어맨과 조개소년 졸업 잘해보자 파이팅!! - [국어국문학과 17학번 조개소년]

● 이번 학기 축제 너무 재밌었습니다. 허각, 기리보이, 한요한, 효린 잊을 수 없는 무대였습니다. 축제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총학생회 임원진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연도 축제도 기대하겠습니다!! - [자치행정학과 21학번 노혜원]

● 낭만있는 캠퍼스 생활을 보내느라 행복하당. - [국어국문학과 23학번 아무개]

● 도연아 녹색광선 동아리 회장으로 고생도 많이 하는데 좋은 동아리 만들어줘서 항상 고마워! 다음 학기에는 신문사 부원으로 새롭게 다시 만나자. - [국어국문학과 21학번 김혜미]

● 이제 곧 군대를 앞두고 있는데 2학년 1학기까지의 캠퍼스 생활이 재미있었습니다! 아직 캠퍼스 생활이 남아있지만 2년 동안 학교를 재학을 못 하는 만큼 달라진 학교를 기대하며 군복무를 마치고 오겠습니다. 민섭아! 남은 기간 동안 여행도 다녀오면서 추억 많이 쌓고 군대가자 ^^ - [경제학과 22학번 동동주]

9월호에 실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sh091401@gwnu.ac.kr로
응원, 칭찬, 축하 등을
보내주세요 !

멍석

이미 흘러가 버린 인연들에게

회계학과 이예진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처럼 우리 속담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물이 흘러가면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진다. 그런만큼 관계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인연을 맺고 끊는 게 가위로 종이를 오려 붙이는 것처럼 간단하다면 좋겠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 간 관계는 복잡하다. 처음 보는 사람과 신뢰를 쌓고 친밀한 사이가 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자주 만나며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이별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만남과 이별뿐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노력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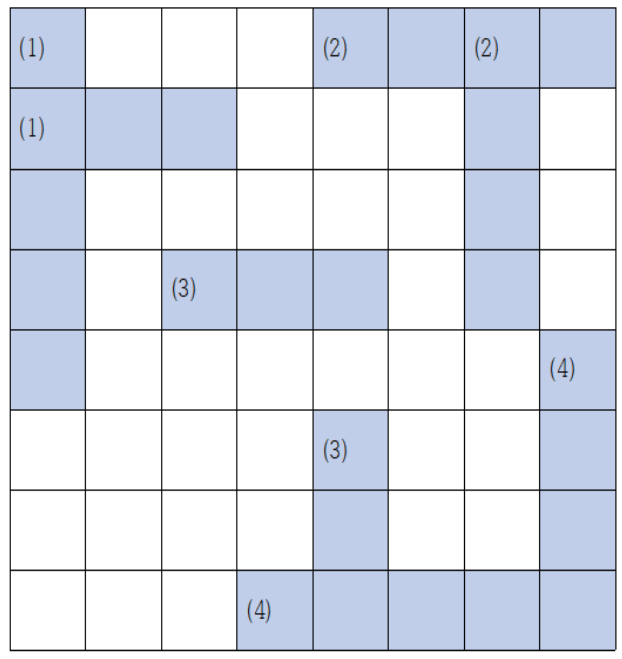
우리의 일상에서는 관계의 중요성에 따른 선택이 연속된다. 우리가 하는 선택에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항상 무언가를 정하기 전에 어느 것이 좋은 선택일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나중에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 멀리 흘러 내려가 잡히지 않는 물처럼 떠나간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후회가 남지 않을 선택을 위해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인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물도 고인 채로 오래 두면 썩는다. 썩어버린 물이 주변에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길 때는 그 물을 치우기 마련이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오래 알고 지낸 만큼 더 힘들다. 그렇지만 자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랜 인연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남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상처가 있을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더 조심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너무 밀어내지만은 않았으면 한다. 그 사람도 당신에게 다가오는 데에 그만한 용기를 냈을 테고, 그만큼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는 남을 수 있다. 그 흉터를 보면 마음이 아릴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상처가 잘 아물 수 있게 자신을 챙겨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어리숙했던 나로 인해 상처받았을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의 인연에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한다.

십자말풀이



가로열쇠

(1) 학교나 회사 따위에 딸려 있어 학생이나 사원에게 싼값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
(2) 옛일을 거울로 삼는다는 뜻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 교훈을 삼는다는 말.
(3) 어떤 단체 따위가 한데 모이는 행사.
(4) 육회와 여러 가지 나물 따위를 섞어 양념에 비벼먹는 밥.

세로열쇠

(1) 개인이 이전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불리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과정.
(2)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3) 음악을 연주하여 청중에게 들려주는 모임.
(4) 아침을 챙겨먹지 못하는 학우들을 위해 천원에 제공되는 국밥.

< 03월호 십자말풀이 정답>

가로 열쇠 정답- 1.학내언론 2.해외봉사 3.입학식 4.국가장학금
세로 열쇠 정답- 1.학령인구 2.상담사 3.학내 소식 4.학군단장

학습클리닉 신청 안내



- 운영과목: 글쓰기, 영어, 기초수학, 기초물리, 기초화학, 1:1학업코칭
- 운영시간: (대면) 09시~18시, (비대면) 09시~22시
- 신청대상: 우리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대학원생 제외)
- 지도비용: 무료~!!
- 신청방법: 최소 2일전까지 온라인(cats.gwnu.ac.kr) 예약

혼자 공부하다가 어려울 땐?
학습클리닉을 신청하세요~!!
분야별 전문튜터가
1:1로 학습지도를 해주세요~



☎문의: 033-640-1724
(교양기초교육본부)